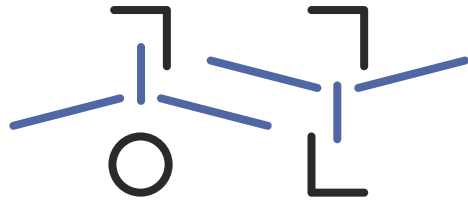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0
06
5 0 4

<http://afine.co.kr>

6·25 70



Contents

04	기획특집	공군사관학교 1기, 6·25전쟁 출격조종사를 만나다 (이배선 예비역 대령)
10	특별기고	한국 공군이 나아가야 할 길 (박성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12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4화 구상(具常) 시인 편
16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집	6·25전쟁 항공전의 역사적 의미
19	6·25전쟁 70주년 기념 포스터 제작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김현준 상병
20	내 옆의 공군인	정다훈 감독(학사 127기)
<hr/>		
26	우리 부대는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3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하사 홍인선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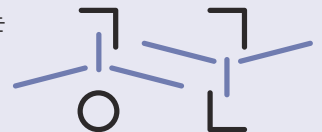
발행일자 2020년 6월 1일(통권 제504호)
발행 대한민국 공군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집감수 중령 정기완
기획·편집 대위 박란,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0050232)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6	시인의 책	내 마음이 지옥 !
38	명상을 말하다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40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스파르타의 군인정신
42	트렌드가 보인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생각의 이분화
<hr/>		
44	공군인의 편지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제17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 일병 김현우)
		못다 한 말, 이렇게라도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38전대 기상대 상병 이정우)
46	책읽는 공군	『그릿 GRIT』 끈기가 성취를 만든다. (제35비행전대 257공수비행대대 대위 박진솔)
48	생각하는 그림	언택트
50	기준의 기준	요즈음
53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공군사관학교 1기, 6·25전쟁 출격조종사를 만나다

이배선 예비역 대령

6·25전쟁에 참전한 공군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조종사.
전쟁 기간 동안 본인의 비행 출격일지를 기록하신 유일한 분.

18살, 고향인 함흥을 떠나 월남하여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기까지 과정과 6·25전쟁 동안의 전투 출격 이야기, 월남한 여섯 형제 모두 공군에 복무했던 가족사까지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삶을 들어보았다.

18세 소년의 목숨을 건 월남

올해 나이 90세, 1931년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이배선 예비역 대령(이하 이 대령님)님은 18살이 되던 1948년 11월에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 월남하셨다. 48년 겨울은 사실상 월남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평탄한 길을 통해 내려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함흥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 도착 후 김화, 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오신 이야기는 한편의 전쟁 영화를 떠오르게 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싸주신 옛이 생각나는 거야. 한 덩어리를 먹으니 신기할 정도로 기력이 살아났지” “눈이 오는 산속에서 쓰러진 채, 어둠과 추위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싸주신 옛 한 덩어리가 나의 생명을 지켜준 거야” 이 대령님은 지금도 입시 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옛을 보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리다고 하셨다.

공군 병사 3기에서 공군사관학교 1기로

월남 후 이듬해인 1949년 2월 15일, 이 대령님은 당시 육군항공대 소속이었던 공군 병과 3기생으로 공군과의 첫 인연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공군 병사 3기생은 300여명 정도의 규모로 입대 경쟁률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공군사관학교 1기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관학교 지원해 1949년 6월 16일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하게 된다. “북에 있을 때도 김일성 종합대학(1946년 10월 1일 설립) 입학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학업에는 자신이 있었어. 하지만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북에서는 대학진학이 어려웠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시는 형님을 보면서 내가 군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당시 육군사관학교도 있었지만, 항공기에 대한 호기심과 하늘을 향한 동경심으로 육군 항공사관학교에 입교했어. 육군 항공

사관학교가 한국공군이 49년 10월 1일 창군하면서 지금의 공군사관학교가 된거야”

입교 1년 후, 6·25전쟁 발발

이 대령님은 사관학교 입교 후 1년이 지나 생도 신분으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6·25전쟁 발발 하루 전인 24일은 토요일이었고, 주말 외출을 하여 남(南)에 하나뿐인 가족인 형님을 만나는 중이었다고 한다. 당시 연희대학교(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형님은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외출 때마다 이 대령님께 늘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다고 한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 형님과 북아현동에 있던 작은 고모 댁으로 가고 있는데 중부 경찰서 앞에 ‘북괴군이 38선을 넘어 남침 중이니 모든 군인은 즉시 귀대하라’라는 공고문이 걸려 있었는데 모처럼 외출이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기가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난거야. 형님과 급히 헤어지고 서울역, 노량진을 거쳐 김포 가도 입구에 대기 중이던 부대 차량을 타고 김포에 위치한 사관학교로 돌아왔어.”



6·25전쟁 중 공군 소위 임관

“북귀하자 마자, 김포기지의 연료와 드럼통을 분산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업을 마치고 북귀하는데 적 전투기 기총사격이 시작된거야. 길 양쪽에 있던 보리밭 속으로 긴급히 대피했는데, 처음으로 공격을 받는 순간 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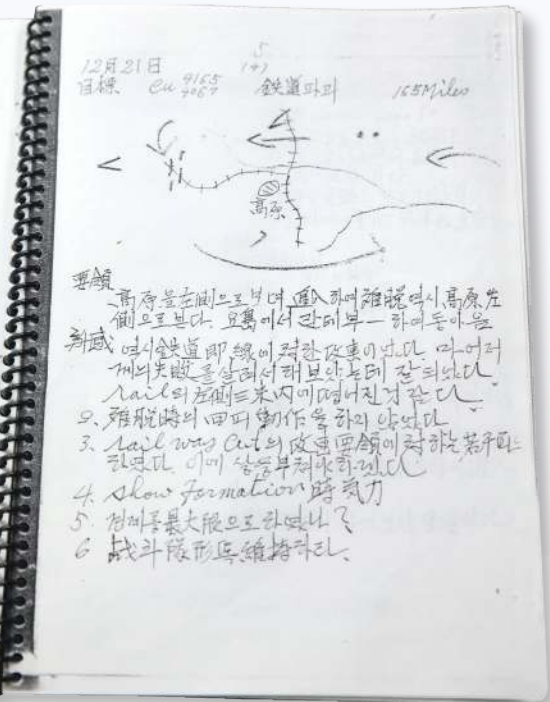
의 전쟁을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다음날 오전에는 말로만 듣던 F-80 shooting Star의 초계 비행도 목격했고” 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에 있는 미국 민간인들의 긴급 대피가 시작되었고, 이들을 후송하는 미 공군 C-54 수송기가 김포비행장을 이륙했던 순간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 “C-54 비행기가 강나루 한강 근방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 전투기 한 대가 공격 강하를 시작한 거야. C-54 비행기를 엄호하고 있던 미군 제트기가 추격해서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얼마나 통과했는지 몰라.” 이후 공군사관학교는 대구를 거쳐 진해로 옮겨졌고, 1951년 7월 10일 진해에서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당시 사관학교 교육 기간은 2년)

첫 출격, 첫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

사관학교 졸업 후 사천에서 약 1년간에 걸친 조종훈련을 끝낸 이 대령님은 13명의 동기들과 함께 전투 출격을 위해 공군 전진 기지인 강릉 제10전투비행단에 배

속되게 된다. 미 공군소속 C-47형 수송기를 타고 강릉에 도착한 것은 1952년 12월 초 늦은 오후였다.

“당시 강릉에 있던 조종사들을 ‘산돼지’라고 부르기도 했어. 건강하고 정말 와일드 했지. 당시 신참이었던 나는 먼저 출격을 나선 선배 조종사들을 보면 늘 믿음직스러웠어.” 비행장 주변의 지형을 익히기 위해 2~3회의 관속비행이 끝나고 1952년 12월 14일 첫 출격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수행했던 항공 작전은 적의 후방 군사 시설인 교량과 철도의 파괴, 보급물과 병력집결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지상군 엄호 작전이었다. 당시 4개 편대 16대로 구성되어 작전을 수행했고, 이 대령님은 4편대 2번기에 편성되었다. “편대장은, 처음 출격하는 나에게 편대장기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다니는 것이 그 어떤 임무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 첫 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 필사적으로 편대장의 비행기만 쫓아다녔지. 첫 출격의 두려움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라고”



출격일지 사본

출격일지

이 대령님은 1952년 12월 첫 출격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는 날까지 수행한 92회에 걸친 출격에 관한 내용을 두 권의 노트에 기록하셨다. 한글, 영어, 한자가 곁은 글씨로 빼곡히 섞여 정리된 일지를 보니 숨이 턱 막혔다. “매번 출격이 나에게 큰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오늘의 출격을 바탕으로 내일의 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매 비행을 분석해서 일지에 기록했어. 폭격, 기총사격 등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공격과 비행 전반에 관한 검토와 분석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노력했어.” “동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외출하는 저녁이면, 나는 목재 사물함을 책상 삼고 목침대 가장자리를 의자로 삼아 하루의 출격을 기록했어. 이런 노력의 과정이 전투 조종사로서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말은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출격 일지의 기본 정신이었다.



2016년 12월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한故임택순 대위의 호국인물 헌향행사에 동기생 대표로 참석

사관학교 동기생 故임택순 대위의 산화

故임택순 대위는 공군사관학교 1기생이자, 공사 출신 최초의 전사자로 공군사관학교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대령님은 임택순 대위와 공군사관학교 1기 동기로 ‘딱총’이라는 별명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출격일지에는 故임택순 대위의 사고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36번째 출격이었어, 임택순 동기생은 11회

쯤으로 기억하는데 동해안 고성 북쪽 지역으로 아군 지상군을 엄호하는 작전에 같이 출격하게 됐어. 휴전이 가까워지면서 지상군에 대한 후방지원 작전이 많았고, 그때는 351고지 작전을 지원할 때였어.” “나는 그때 임택순 동기생과 같은 편조로 출격을 했어. 임 중위가 2번기 내가 3번기였지. 공격에 참고되는 사향을 무전을 통해 받으면서 2번기인 임택순 동기의 공격이 끝나고 3번기인 내가 공격을 시작했어. 급강하하며 목표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큰 화염이 나는거야. 탄약저장소 같은 숨겨진 목표가 우연히 명중된 것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공격을 마치고 집합을 해보니 비행기 한 대가 없어진 거야. 동기생에 대한 걱정으로 위험도 잇은 채 초저공 비행을 감행해서 다시 폭발지점에 가보니 화염 사이로 태극마크가 보였어.” 이 대령님은 그 날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 전에도 고성에 다녀왔어. 임 대위가 전사한 지역이 지금은 비무장지대인데, 언젠가는 동기생의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휴전, 92회 출격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있던 당일, 이 대령님은 총 3번 출격을 나가셨다고 한다. “출격 때마다 비행 약식 모자의 챙에 짝대기를 그었어. 휴전협정이 발표되던 날은 총 3번 출격했고, 92회 마지막 출격 때는 기지에 있는 모든 탄약을 소비하리라고 외치며 비행을 나갔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내려오자 정비사가 올라와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기에 “당신네 아니면 아무 것도 못했을거요.”라고 했지.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공군 전 분야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92회 출격이었어.” “100회 출격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공격 후 귀환 때마다 이번 비행이 나에게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최선을 다한 내자신이 자랑스러웠고.”



▲ 1956년 초 T-28 훈련당시 Sterling 기지
▶ 1956년 2월 미국 비행 훈련시



이배석 (예)대령



군의관인 형님, 여섯 형제가 모두 공군에 복무

이 대령님의 6남 3녀 중 여섯 형제는 모두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했다. 형님인 이배석 예비역 대령은 공군 군의관으로 항공의학연구원 진료부장까지 지내셨고, 바로 아래 동생인 이배열 예비역 대령 역시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했다. 넷째 동생(이배을)은 조종사 구조사로, 다섯째(이배영), 여섯째(이배철)는 의무, 정보병으로 공군에서 복무했다. 이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군에서도 찾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한다. 이 대령님은 인터뷰 중에 형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이 대령님의 형님은 1947년 서울로 월남하여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 재학 중 6·25전쟁을 맞게 되었고, 서울 수

복 후 미 육군 10군단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셨다. “미군이 북으로 진격했을 때 형님이 고향 함흥에 있는 집을 찾아가 가족들과 첫 상봉을 했어. 통역관이었던 형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흥남 부두에서 온 가족이 남으로 내려오지 못했을거야. 나는 진해기지에서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두고 거제도에 방문해서 가족들을 잠시 만날 수 있었어. 그때 얼마가 감격스러웠는지 아직도 꿈같이 느껴져” 이 대령님의 형님은 종전 후 대한민국 공군의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대령으로 예편하셨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셨으며, 미국에서 한국전에 출전했던 미군들의 수기를 엮은 책 『한국의 초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자비로 출판하기도 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의 합동 결혼식

이 대령님 댁 거실 한쪽 벽면은 옛날 사진으로 가득차 있었다. 특히 항공기 앞에서 찍은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였던 동생이랑 같이 여의도 공항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 당시에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 주례는 공군 창군의 7인 중 한 분이신 장덕창 장군님께서 맡아주셨지.” “항공기를 세워두고 그 앞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하객들 중에는 그 비행기 승객들도 있었고(웃음),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 부부와 함께 그 항공기를 타고 부산으로 바로 신혼 여행을 갔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결혼식이었다.



총 비행시간 2만 2천 시간

이 대령님은 전쟁 이후에는 조종 교관으로 후배 양성에 힘쓰셨다. 비행 훈련 대대장 시절 미군 공군 조종사 훈련과정을 도입하여 실천하였고, 김해 비행학교 교장을 거쳐 안전과장과 안전감으로서 항공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확립을 위해 노력하셨다. “21년간의 군대 생활을 회상해 볼 때 치열한 전쟁 중 별다른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92회의 전투 출격. 그리고 내 고향을 향해 단 한 번도 폭탄을 투하하지 않아도 되었던 행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해.” “윤응렬 장군님, 박재호 장군님도 기억에 많이 남네. 박재호 장군님은 미국에서 조종사 교육 방법 도입 임무를 맡았을 때 늘 소신껏 하라며 격려를 많이 해주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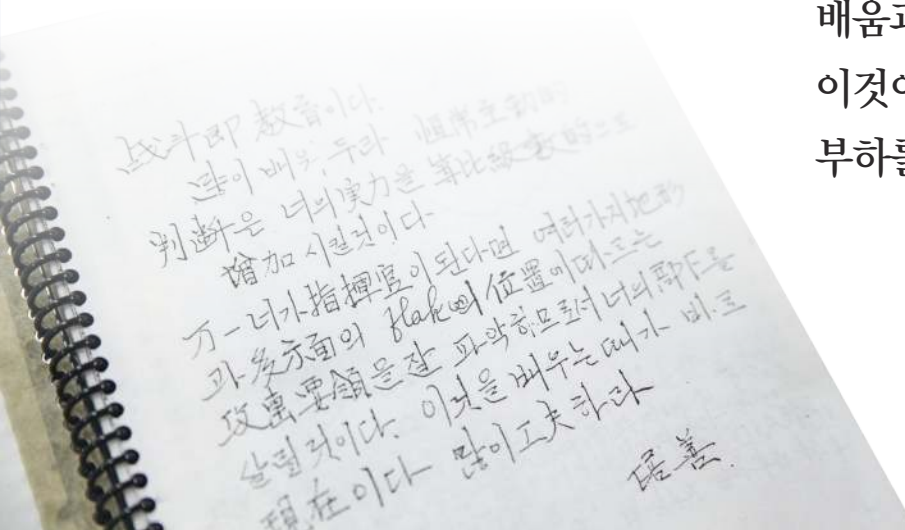
1970년 4월 40세. 정직과 청렴, 열정을 다했던 21년의 군 생활을 마감함과 동시에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21년 6개월 동안 제2의 비행 생활을 하셨다. 인생의 2/3의 시간을 하늘에서 비행기와 더불어 살아오신 것이다. “나는 지금이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라 생각해. 출격일지도 그렇지만,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통해 후손들에게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어.” AF



2019년에 제작한 책의 표지

“전투는 교육이다.
출격은 산 실체의 교육이고 실습이다.
출격을 통해 배움에 노력하라.
배움과 공부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지휘관이 되었을 때
부하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

- 출격일지 中 -



한국 공군이 나아가야 할 길



글쓴이

(현)국방부출입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공군정책자문위원, 해군정책자문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전국사회부장, 외교안보팀장 역임.

6·25 전쟁이 벌써 70년 전 일이 됐다. 대한민국 공군은 개전 초기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으나, 총성이 멎을 때쯤에는 F-51 전투기 133대를 운용했다. 경향공기 22대로 북한군에 맞서야 했던 공군은 급한대로 미 극동사령부로부터 F-51 무스탕을 지원받기 위해 전쟁 발발 다음 날인 6월 26일에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10명의 조종사를 일본 이타즈케에 있는 미 공군기지로 급파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근석 대령(사후 준장 추서)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7월 2일 10대의 낡은 F-51 전투기를 몰고 대한해협을 건너 대구기지에 도착했다. 다음 날인 7월 3일에는 첫 출격에 나섰다. F-51 전투기 편대는 동해안 삼척 지구 등에 상륙한 적 지상군을 공격했고 탱크와 차량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기록을 보면 공군 전투기는 전쟁 기간 동안 총 8,457회 출격해 적 899명을 사살하고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탄약 및 연료 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포진지 521개소를 파괴했다. 이는 유엔 공군 중 3번째로 많은 전투출격 기록이다. 100회 출격의 대기록을 달성한 조종사만도 39명이나 됐다. 조종사 23명은 적지에서 산화하기도 했다.

6·25 전쟁 발발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변화가 무쌍하다. 그 사이에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공군은 이제 F-15K ‘슬램 이글’은 물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프리덤 나이트’까지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와 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까지 전력화했다. 6·25 초전 당시 연습기 뒷좌석에서 지상으로 던졌던 수제폭탄은 이제 스마트 폭탄으로 바뀌었다.



공군의 활동 영역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우주의 시작은 통상적으로 고도 100km라고 정의되고 있다. 인공위성이 궤도를 도는 가장 낮은 고도가 100km이다. 정지궤도 인공위성은 3만 6,000km까지 배치돼 있다. 이 100~3만 6,000km 우주 공간이 통상적인 우주 공군의 작전 영역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간에서 우주왕복선 형태의 전투기가 ‘빔’ 무기로 공중전을 치를 것이라고까지 예견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앞다투어 우주군을 양성하고 있다. 중국은 ‘항천(우주) 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5월 18일 항공자위대 산하로 창설했다. 일본은 2026년 우주 공간에서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명칭까지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우주력 현대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략군 사령부에서 우주군 및 우주방어군을 분리해 우주군으로 독립시켰다. 미국 역시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강대국들의 이런 움직임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

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이용에 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우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우주강국이고 북한마저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우주능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지만 역시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다. 우주 공간도 방위 영역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5월 7일 에어포스 퀀텀 5.0(Air Force Quantum 5.0·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 개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감시체계를 연동한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비, 공중자산과 우주자산의 상호운용성에 기반을 둔 공중·우주 통합작전능력 확보, 공중우세 개념을 우주까지 확장한 공중·우주우세 확보 등이 논의됐다.

미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를 열기 위해 눈을 우주로 돌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군의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는 적절한 구호다. 변화를 싫어하면 그 변화에 패배하게 돼 있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4화 구상(具常) 시인 편

폐허에서¹⁾

하꼬방(板子幕) 유리막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있다.

내려다보던 해뺨이 눈부시어 돌아 선다.²⁾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재떨이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³⁾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체녀⁴⁾(少女)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코메트』 제3호, 1953년

1) 구상 시인은 자신의 첫시집 『초토의 시』(1956년)에서 이 시를 연작시 중 첫 번째 시(詩)인 『초토의 시 1』로 제목을 변경하여 배치하였다.

2) 『초토의 시 1』에서는 “내려쫓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로 되어 있다.

3) 『초토의 시 1』에서는 “재떨이가 소복한 울타리에/개나리가 망울졌다.”로 되어 있다.

4) 처녀. 평안도, 황해도 방언

구상 시인은 6·25전쟁 기간 육군중군작가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1954년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까지, 『코메트』지에 총 6편의 글을 남겨놓았다. 초토의 시 연작시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폐허에서」(『코메트』 제3호, 1953년) 시 1편과 「세계에 호소할 한국의 저력」 편 중 「민족근기(根氣)의 재형성」(『코메트』 제2호, 1953년), 「원죄이후」(『코메트』 제2호, 1953년), 「문학강의1-감상(감상에 대하여)」(『코메트』 제11호, 1954년), 「문학강의2-고전에 대하여」(『코메트』 제12호, 1954년), 「문학강의3-문장에 대하여」(『코메트』 제13호, 1954년) 등 산문 5편이 그것이다.

민족근기(根氣)의 재형성

(중략)

실로 민족의 근기란 이렇게 관념적이요 추상적인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향시 노출되고 현상되고 있는 것이리라.



『코메트』 제2호, 1953년

(중략)

우리의 멸망치 못할 민족의 근기란 이런 가장 가차운 시시비비 정신 속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또 민족의 참화와 불행을 역사상 무시로 무수히 초래한 것도 이 시시비비의 난립혼선이었던 것도 숨기지 못할 사실이다. 말하자면 흑백시비의 이 민족성이란 의와 불의에 가장 민감한 민족성이라 해도 된다.

그러나 「대의 앞에서도 소의가 승하고 소의로 말미암아 대의 죽는가」 격과 같이 대의 속에 소아를 모라 넣고 하나의 주체정신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도 신경질이다. 그래서 우리 역대 정사자들은 국교(國敎) 건설 또는 외자도입 등으로 이 민족의 기와 성을 강압함으로써 타력적(他力的)으로 유지하려 드렸으나 언제나 미구에 실패였다.

이러한 민족성과 지리적인 조건이 역사적으로 결합하여 이제 인류의 선악투쟁이 운명적이라고 할까! 더욱이나 우리 한국 재남동포는 다행히도 선의 의지에 가담하여 그 선봉장이 되고 있으니 간선(揀選)받은 민족이라 할까! 이제 설문고(設問稿) 장수(數)를 위하여 이로(理路)를 중단시키면서 한마디 명백히 해둘 것은 이러한 인류적인 역사성 밑에서 우리의 민족성의 장애가 되고 있는 소아 소의를 대아와 대의 속에 현전함으로써 진실로 주체적인 민족근기를 도야 형성하여야 할 때가 이때라는 것이요 만일 소아와 소의에 이제 다시 구애(拘碍)하여 시비를 위한 시비에 빠져 있다가는 진정 우리는 구출치 못할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부언해 둔다.

*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대구문학관 이성호 팀장이 문학관 3층 전시실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5월 6일과 7일, 대구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과 구상문학관을 둘러보았다. 대구문학관(관장 이하석 시인)의 이성호 팀장이 나와 문학관 안내를 맡아주었다. “대구문학관은 2014년 개관했습니다. 대구 지역 문학과 6·25 전쟁기간 중군작가단의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향촌동과 인근 지역은 피란살이를 하는 문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구상 시인은 1919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심 깊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 종교과에 입학했다. 학업을 마치고 해방 후 가족들이 있는 원산으로 돌아왔다. 1946년 해방기념시집 『응향』에 발표한 「여명도」, 「밤」, 「길」 등 그의 시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퇴폐적, 부르주아적 반인민적인 반동’으로 몰자 일남하였다. 가톨릭교 신부인 그의 형은 이북지역에 남아 있다가 순

교했으며, 또한 부인과 두 아들이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 등 불행한 가족사를 겪었다. 그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았다. 폐 질환으로 젊은 시절부터 수술을 받아 생사의 경계를 오갔다. 그래서일까. 일상의 사물과 현상에서 구원과 영원성을 포착하는 시가 많다.

구상 시인은 1953년부터 1974년까지 “물을 보며 마음을 닦는다”라는 뜻을 품고,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관수재(觀水齋)’를 만들어 이곳에서 『초토의 시』(1956년), 『침언부어』(1960년) 등 많은 시집과 글을 발표하며 20년을 지냈다.

구상 시인의 첫시집은 1951년에 발표한 『구상』이며 이후, 『말씀의 실상』(1980년), 『까마귀』(1981년)와 『그분이 홀로서 가듯』(1981년) 등과 말년에는 『오늘 속의 영원, 영원 속의 오늘』(1996년), 『홀로와 더불어』(2002년) 등 다수의 시집을 냈고, 그 외 수상집(묵상집)과 에세이, 희곡 등도 집필했으며 「드레퓔스의 벤치에서-도형수 장의 독백」과 같은 다수의 시들이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교수로서 활동하기도 한 그는 군정계에 많은 지인이 있고, 또 그들의 간청이 있음에도 권력과는 거리를 두며 오히려 권력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역시 강이 내려다보이는 여의도로 거처를 옮겨 꾸준히 시작활동을 하다가 2004년 5월 11일에 영면하였다.

시,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는 “당신의 그 단순하고 소박한/수행을 흉내라도 내 가노라면/당신이 그 어느 날 지친 끝에/고대하던 사랑의 화신을 만나듯/나의 시도 구원의 빛을 보리라” 등처럼 신앙심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작시인 「초토의 시8-적군 묘지 앞에서」에서는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냥/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씩어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그래도 양지바른 드메를 골라/고히 파묻어 폐마져 입혔거니/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라고 하여 전쟁터에서 벌어졌던 인간성 파괴를 환기하며,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그의 시는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테마로 시적인 외연을 확장하고 삶과 시가 일체가 되기 위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사유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상 시인(구상문학관 제공)



오른쪽에서 네번째, 구상시인(구상문학관 제공)

“우리 인간이 진실한 의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긴장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다 우리가 감상한 문학의 사상이나 감정을 환기시켜 선용함으로써만이 미에 향한 감지력을 강력케 하고 순간과 영원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구상, 「문학강의1-감상에 대하여」, 『코메트』 제11호, 1954년)

1954년도에 시인이 쓴 이 글을 보면 시 전편에 깔려 있는 그의 에토스(ethos)적인 시철학과 시적 방향이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문학인들의 글쓰기의 태도에 대한 경각심도 지적하고 있다.

“금일의 문학이나 예술 깨나 한다는 작자들은 실락 이전 에덴에서 소행하듯 행동하려 든다. 그래서 상하간의 진실이 상처받고 나아가서는 사회 또는 인류의 바른 의지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을 끼치고 있다. 인간은 그 진실을 지탱하기 위하여 참으로 경건한 형식 속에 자기를 의지하고 또 창조하여야 한다.”(구상, 「원죄이후」, 『코메트』 제2호, 1953년) 이러한 지적은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와 기어(綺語)」에서, “나의 입술에 담는 말이/치장이나 치레가 아니요/진심에서 우러나오게 되며/(중략)/세상 만물과 그 실상을 보게 해다오.”라며 교만과 겉치레도 경계하고 있다.

그의 시세계는 언행일치, 실천, 깨달음, 인류애적 사랑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모순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없이 드러내는 진솔함 등이 묻어나며 평범한 듯 정곡을 찌른다. 전쟁기간 국방부 정훈국과 각 군의 정훈을 오가며 중군작가단을 이끌었던 그는 조국에 대한 지극한 사랑도 시로 남겼다.

“늑는 차라리/내 가슴에 못 박힌 한, 언제나 그 자리는 피맺혀/아리고 저리니 말야.”

구상 시인은 초기의 시에서부터 공동체의 상처와 증오심을 극복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았고 보여주었다. 불의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에도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

“정의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구상, 「그분이 홀로서 가듯」에서) 한때는 핏빛이었던 낙동강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가 된 채, 70년 전의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과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내 앞에서 유유히 흐르기만 한다. AF

6·25전쟁 항공전의 역사적 의의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 공군은 겨우 연락기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군은 야크 전투기, 일류신 폭격기 등을 포함하여 220대가 넘는 항공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해상군은 전쟁 기간 내내 적 항공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유엔군 항공기의 오폭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있었어도, 적 항공기의 공격으로 우리 지·해상군의 작전이 방해를 받은 적은 없었다. 어떻게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 많던 적 항공기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신속한 제공권 장악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짐과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자국민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곧바로 C-54 항공기를 김포 기지로 보낸다. 이때 북한 야크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해 C-54 항공기 한 대가 파손되었고, 극동공군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F-80 슈팅스타 전투기와 F-82 트윈머스탱 전투기를 일본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수송기들을 엄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엄호작전의 결과 미 공군은 6월 27일 하루에만 7대의 적기를 격추했으나, 38선 이북에 대한 폭격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지침 때문에 항공작전을 더 확대할 수는 없었다.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

6월 29일 맥아더 사령관은 전황을 시찰하기 위해 C-54 수송기에 탑승하고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수원비행장에 도착한다. 이때 비행장을 공격하려는 적 야크 전투기와 근접 호위비행을 하던 무스탕 전투기 간에 공중전이 벌어졌고, 적 야크 전투기 4대가 모두 격추되었다. 지상에서 이 공중전 장면을 직접 목격한 맥아더 사령관은 공중우세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고, 미 극동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38선 이북의 적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승인하게 된다. 38선 이북의 적 비행장에 대한 폭격과 적 항공기들을 소탕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엔 공군은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신속하게 장악해 나갔다. 전쟁 발발 후 한 달 정도 지나는 시점에 한반도 상공에서 적 전투기는 완전히 소탕되었다.

지상군을 지옥으로부터 구한 항공력

성공적인 제공작전에도 불구하고 지상 전투에서는 막강한 북한 지상군에 밀려 우리 지상군은 제대로 된 방어선조차 구축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남쪽으로 밀려갔다. 이때부터 유엔 공군은 적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중공격과 후방차단작전을 전개하여 지상군이 부산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적의 연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동안 미 공군이 공중공격을 통해 구축해 놓은 종이처럼 얇은 방어선만이 유일할 것이었다. 과도하게 연장된 북한군의 보급선을 상대로 한 계속된 차단공습(전체 임무의 40%)과 필사적인 지상 전투를 지원한 공중 공격(전체 임무의 60%)은 부산방어선에 포위된 유엔군을 구했다.

이와 같이 유엔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거둔 성공은 유엔 공군 부대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북한의 전략 표적을 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천후 정밀폭격과 북한의 작은 영토 크기 덕분에 유엔 공군은 1950년 9월까지 북한군의 산업 기반을 거의 다 제거할 수 있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지상군이 부산방어선을 돌파하여 그토록 신속히 서울을 탈환하고, 마치 경주하듯 압록강까지 북진할 수 있었던 것도, 유엔 공군력에 의해 적의 전쟁 수행능력이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그 엘리



F-51 무스탕 편대 출격모습

낙동강 방어진 지원을 위한 한국공군 F-51과

미 제6146부대 합동 출격

미공군 헤스대령(1917~2015)의 좌우명

「By faith I fly」를 번역한 신념의 조인

(信念의 鳥人)이 새겨진 F-51D 무스탕 전투기

미 8군사령관으로 지상군을 지휘했고,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그 후임으로 유엔군을 지휘했던 리지웨이 장군은 이때의 상황을 “유엔 항공력이 지상군을 지옥으로부터 구한 사례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대규모로 전선에 투입되고, 지상에서 공산군이 38선까지 밀고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공중에서는 유엔 공군이 공산군 항공력을 ‘미그 엘리’라 불리는 압록강 상공에서 대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 세계 전쟁사에서 제트전투기 간 최초의 공중전이 벌어진 것도 이때다. 돌이켜 보면, 6·25전쟁은 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유엔군의 공중우세와 제공권 장악하에 치러진 전쟁이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성장과 발전

1949년 10월 1일 창군한 우리 공군은,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6·25전쟁을 맞았다. 다급해진 우리 공군 선배들은 연락기에 지상용 폭탄을 싣고 올라



F-51 인수조종사 10명

가 남하하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편으로는, 6월 27일 이근석 대령, 김신 중령 등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에 있던 미 공군 기지로 급파하였다. 그들은 제대로 된 기종전환 훈련도 받지 못한 채 7월 2일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직접 몰고 대한해협을 건너 대구기지에 착륙했다. 출발했던 여의도 기지는 그사이 적군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무스탕을 인수한 우리 공군은 7월 3일 첫 전투기 출격을 단행하며 항공작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쟁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작전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공비토벌 작전기간 중 마침내 미군으로부터 단독작전 수행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평양 대폭격작전’,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등 공군 전사에 빛나는 전과를 올리게 된다.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 공군 선배들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6·25전쟁과 같은 비극을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강력한 공군력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들은 “우리 공군에 굳이 제트전투기가 필요한가?”, “국토 면적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왜 공중급유기가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무지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공군력 건설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왔다. 그동안 공군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분투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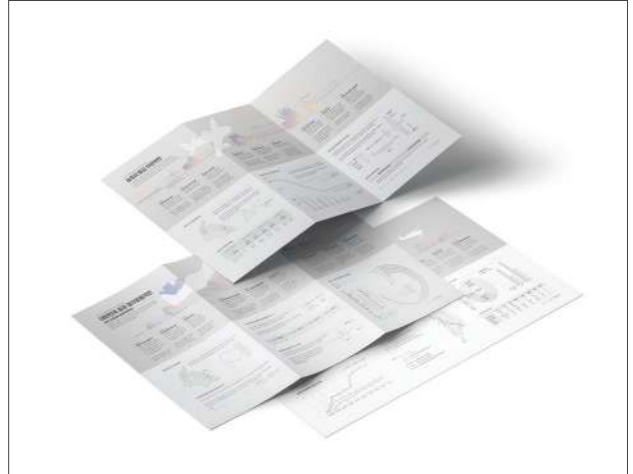
이제는 하늘의 경계가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하나의 공간으로 융합되어 가고 있다. ‘항공우주작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일반화되었다. 우리 선배들이 강력한 공군력 건설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는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작전개념의 발전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할 때다. AF

인포그래픽 포스터 제작기

상병 김현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그래픽디자인담당



상병 김현준



공군지에 삽입된 인포그래픽 포스터

6·25전쟁 70주년 인포그래픽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70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림에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함'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하고 복잡한 '역사'라는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 알기 쉬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지루하고 막연한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했고, 가능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시각적 흐름을 고려하여 상단(타임라인)과 하단(부가설명)으로 나누었고, 가로 역시 세부부분으로 분할하여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포스터의 특징은?

작전의 흐름을 라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폭발장면에 동화적인 컬러를 주어, 공격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포스터로도 사용되는 만큼, 모노톤의 배경에 절제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방 한켠에 무심하게 붙이면 느낌이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공군과 소통하는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작업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정된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후속 시리즈의 배치와 컬러까지 고려하다보니 첫번째 시리즈에 많은 시간을 쏟은 기억이 납니다.

볼 수 있는 곳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월간 『공군』 4·5·6월 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19),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 (afzine.co.kr)에서도 포스터 이미지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5 70주년 기념 이벤트를 통해 대형 포스터와 머그컵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6화 정다훈 감독 (학사 127기)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필승(必勝)의 신념으로”

‘필승(必勝)의 신념으로’는 그의 카톡 프로필이다. 군을 떠났지만 모든 일에 ‘반드시 이긴다’는 군인정신으로 임하는 사나이. 성공의 바탕은 철저한 준비라고 믿는 그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에 관련한 이론, 촬영 기법 등 취미 삼아 스스로 실력을 키운 그는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홍보과 미디어영상팀¹⁾에서 3년 4개월간 복무하며 수많은 콘텐츠를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2013년 당시 유튜브 조회 수 500만을 기록하고, 국내 전 매체는 물론 외신에서도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레 밀리터리블(Les Militerables)²⁾’이다. 20대 중반, 장교로서 매 순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 큰 성장 발판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사람의 시선과 이야기, 좋은 영향력을 담는 영상을 만들자는 철학을 갖고 기업 및 공공 기관 홍보 영상 연출 및 제작 업무를 하고 있다.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공군 예비역 중위 정다훈 감독의 3년 4개월의 공군 복무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어보았다.

공군과의 인연

입대 전, 공군 학사 장교로 입대한 대학 선배들을 보며 공군 입대를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해외에서 거주했던 저는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통역장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장교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던 중 친한 선배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취미 삼아 공부했던 저에게 공군 정훈공보실 홍보과 소속 영상기획 담당 자리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제가 더욱 의미 있게 쓰임 받는 자리에서 전문성을 살리며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관해서는 스페이스챌린지 같은 공군 행사 포스터와 카드 디자인 등을 담당하였고, 홍보 영상콘텐츠 촬영과 편집을 하며 레 밀리터리블(Les Militerables)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11년 간부 후보생 시절



2014년 전역 전 기념사진

- 1) 당시의 홍보과는 2019년 부 문화홍보과와 미디어콘텐츠과로 분리되었고, 현재 관련업무는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수행한다. 주로 공군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에 영상과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공군을 홍보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것부터 월간 공군, 공군 홍보 물품, 각종 포스터·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2012년 흥행했던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공군 장병들의 사랑과 군부대 제설작업의 애환을 위트있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음악·영상미·스토리 등 수준 높은 퀄리티로 소개 직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2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초·중·고 시절을 중동, 독일 등 해외 곳곳을 옮겨 다니며 지내서인지 저에게는 어느 나라, 지역에 대한 뿌리가 없었습니다. 20살에 귀국하여 국내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에 공군으로 입대하였는데, 당시는 아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서 소위 시절 전화 받는 것조차 두려웠고, 문서 결재 올리는 것 하나하나가 힘든 업무였습니다. 당시 문서를 만들 때마다, 동료 전우들에게 오타와 맞춤법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훈 장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용어뿐만 아니라, 존댓말과 높임말의 차이까지 선배, 후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배워 나갔고, 시간이 흐르니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군 복무 중 공군에서 얻은 수많은 인연과 경험이 제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군 생활,
한국인의 정체성



2014년 공감팀 복무 당시 편집 중인 정다훈 (예) 중위

레 밀리터리블
(Les Militerables)

공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에 근무하였기에 늘 팀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콘텐츠에 관한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며, 레 미제라블 영화에 대해 수다를 떨던 중 ‘앞부분 장면 멋지던데?’, ‘요즘 제설 시즌인데?’, ‘자베르 옷이 파란색인데? 공군 제복도 같은 색인데?’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고 ‘패러디를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이틀 후가 중위 진급을 하는 날이었는데, 중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영상 제작계획을 보고드린 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레 밀리터리블’은 세상에 공개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설’이라는 소재 자체가 군에 대한 ‘셀프 디스’를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콘셉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훈실장님께서 “믿고 맡길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지지해주셨습니다. ‘레 밀리터리블’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를 신뢰해주셨던 선배님들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2013년 레 밀리터리블 제작 인원 [좌측에서 세번째 정다훈 (예) 중위]

‘레 밀리터리블’은 영화를 패러디 한 영상이니 실제 영화의 인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제작을 끝내야 했습니다. 또 영상의 핵심 소재가 제설이었기에 눈이 녹기 전에 촬영과 업로드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100여 명의 인원을 섭외하여 연출, MR 제작, 개사, 촬영, 편집 등 모든 과정을 딱 한 달에 거쳐 밤을 새우며 진행했습니다. 영상은 뜻밖에도 인기를 크게 얻었고,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뿌듯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군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는 ‘제설작업’이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군 생활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레 밀리터리블’에 이어 작년 겨울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제작한 겨울왕국 패러디 ‘INTO THE DUTY’³⁾ 영상도 후배들의 이런 생각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파견되어 촬영 중인 정다훈 (예) 중위

기회

중위 시절 RED FLAG ALASKA⁴⁾ 연합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한 달간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 정훈 참모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한국 조종사들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수송기와 급유기를 타며 훈련과정을 촬영했고, 국내외 보도자료용 영상과 사진 촬영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훈 장교로서 공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인생에 한 번뿐인 자리라는 생각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 생활도 짧고 경험도 적은 제가 중요한 훈련에 참모로 간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저를 믿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주눅 들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훈실 모션배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훈아 자신감을 가지고 편하게 갔다 와라. 이번 임무를 망치더라도 나의 군 복무가 짧아지거나 너의 군 복무가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3) 2019년 ‘겨울왕국2’라는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INTO THE UNKNOWN’ 주제곡 또한 최고 인기를 달성했고, 공군 미디어콘텐츠과 콘텐츠제작병들은 ‘INTO THE UNKNOWN’을 패러디한 영상을 기획하였다. 영상 제목은 ‘INTO THE DUTY’로, 공군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절망하는 것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느끼는 감정들까지 유쾌하게 풀어냈다.

4) 미 태평양사령부(Pacific Air Force) 주관 다국적 연합·합동 전술 공중 전투 훈련으로 기지를 이륙해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중급유를 받으며 멈춤 없이 이동한다.

전역 이후

전역 후 메가박스 콘텐츠기획팀에서 영상기획 담당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제외하고는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매일 앉아있었습니다. 흰 벽에 컴퓨터 하나 앞에서 업무를 하며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 때쯤 공군 공감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정신 선배가 찾아와 미디어 제작·교육 전문회사 설립제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이야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담은 영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제작 후 검토 중인 정다훈 (예) 중위

회사 설립 후 초반에는 촬영, 편집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연출 제작 PD, CP 등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OICA⁵⁾와 함께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케냐, 탄자니아, 네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영상 스킬, 영어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핸드폰 영상 촬영부터 실제 유튜브 영상, 영화 편집까지 졸업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뛰어난 SF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에이즈로 모두 죽고 아이들만 살아가는 디스토피아 세상을 그린 10편짜리 영상물이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린 환경이 색다르게 해석되어 창의적인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 낸 새로운 결과물을 보면서 교육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며 저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



공군 전역한 팀원들과 함께

5)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개도국에 파견되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나라 경제·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지역사회개발 파견사업 등 최빈국과 재난구호를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활동을 한다.

소통

영상을 제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중과의 ‘소통’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대중이 듣고 또 보고 싶은 이야기를 파악하여 영상에 잘 담아, 보는 사람이 분이 좋아지길 바라고 더불어 교훈과 감동을 주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고기도 같이 구워 먹어야 더 맛있고, 웃어도 같이 웃어야 더 즐겁듯이 말이죠.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정다훈의 삶은 공군 입대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제가 공군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동료들. 이 모두가 큰 선물이었고, 저를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대학원을 다녔을 때와 전역 후 남은 학기를 다녔을 때 저는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수업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20대 중반, 공군 장교로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한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3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에 큰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단기간에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복학한다는 점도 물론 장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군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 돈이든 경험이든 인맥이든 기억에 남고 후회 없는 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공군 장교를 추천합니다. 한두 달 빨리 전역하는 것보다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고,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충분히 투자할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F**

공군 장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우 리 부 대 는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편찬 1집(1949년) ~ 15집(2014년)

기록물관리 대통령 기관 표창 1회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최우수등급 3년 연속 선정

올바른 공군사 정립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 최우수 부대로 인정받은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독수리** : 공군을 상징
- **책과 펜을 든 손** : 공군 역사서의 체계적인 정립과 편찬 임무를 상징
- **청색 원** : 전자보존 매체인 광디스크를 형상화하여 체계적 기록정보의 보존과 활용을 표현

부대 연혁

- '06. 1. 1. 군 역사기록관리단 창설
* 군사연구실('50~'05)과 중앙기록보존소('54~'05)를 통합
- '08. 1. 7.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명칭 변경
- '10. 1. 1. 발간지원과 예속 변경(공본→역사단)
- '14. 9. 4. 공군 역사자문위원 운영
- '16. 1. 29. 기록관리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 '17. 7. 14. 3년 연속('15 ~ '17)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등급 기관 선정(국가기록원)
- '19. 1. 1. 시청각물제작소 예속 변경(공사→역사단)



공군역사 학술회의 개최



역사서 편찬

올바른 공군사 정립 지속 추진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은 공군사·공군본부사 등 역사서 편찬, 6·25전사 연구 및 군사계보(軍史系譜)관리, 공군 역사자료 고증과 자료수집, 국외 항공역사서 번역, 공군역사 학술회의 등의 업무를 통해 올바른 공군사 정립에 기여한다. 특히 공군 역사교육과 원로 증언 청취를 통해 올바른 공군역사가 교육되고 자료로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록물 보존 서고

기록물 체계적 관리 및 대내·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역사단은 특수기록관으로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발전 및 각급 부대 기록물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 기록관(북부, 중부, 남부) 설립 추진, 기록물관리 기동지원팀 운영 등 선진 기록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기록물분야 전문성 강화와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내·외에 기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기록물관리 업무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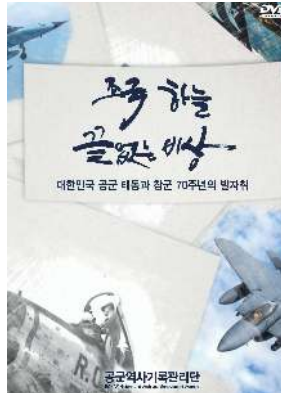
공군군사재 제48호 EC-47Q, 서울여의도 공원 대여·전시



공군 역사홍보존 운영(서울 ADEX 2019)

군 문화재 관리 및 역사홍보

역사단은 군 문화재, 군사재, 전적기념물 등의 군사유물을 관리·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내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지자체, 항공 관련 박물관·기념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 ADEX, Space Challenge, 사천 에어쇼 등 공군 주요행사와 연계한 공군 역사홍보존을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군내·외에 자랑스러운 공군의 역사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홍보영상물 제작

시청각기록물 제작 및 공군 역사·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역사단은 지식정보 자원의 원천인 소중한 기록을 공군인 모두가 쉽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형태의 시청각기록물 및 비전자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청각 기록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공군의 과거와 오늘을 기록하고 교육하기 위해 '역사·교육 홍보영상물'을 매년 제작하고 있다.



기록물 훈증 소독

영구보존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인사기록표, 의무기록 및 시청각기록물 등 공군 중요기록물 228만건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 2개동 8개 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기록물의 변형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훈증 소독 및 기록물의 정수점검을 하는 등 영구기록물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 제작

작품으로 평가받는 프로페셔널리스트

역사단은 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인쇄물, 현수막, 배너, 영상물, 그래픽 디자인, 3D 스캔 모델링 등 경 인쇄물 및 다양한 시청각물을 제작·지원한다. 또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매체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축적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여 국방 미디어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육군 등 타군에서도 지원을 의뢰할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AF

제5공중기동비행단, 한국전 참전국 의료물품 지원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5월 8일(금) 6·25전쟁 22개 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는 미국 등 한국전 16개 참전국과 스웨덴 등 의료지원 6개 나라에 보냈고,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KAF 35 730

인용사 덕분에
UN Veterans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REMEMBRANCE SOLIDARITY PEACE



DO NOT WALK UNDER THIS LIFT
UNLESS IT IS MECHANICALLY LOCKED

AMSS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5월 1일(금) 「군기강이 바로 선 멋진 공군 캠페인」 추진을 위한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군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전 장병과 군무원이 공군만의 멋과 자긍심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성평등자문위원 위촉

참모총장은 5월 21일(목) 공군 내 양성평등 제도 및 정책 발전을 위해 공군 양성평등자문회 위촉식을 갖고, 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좌측부터 KIDA 병영정책실 김규현 선임연구원, 전덕심 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 참모총장, 충남대학교 정선기 교수, 서울신문 진경호 심의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前부협회장)



제8전투비행단

'20년 전반기 화생방 기본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5월 6일(수)부터 5월 11일(월)까지 이론평가 및 실습 훈련 등 '20년 전반기 화생방 기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 종합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5월 7일(목)부터 5월 8일(금) 2일간 실내·외 급조폭발물(IED) 탐색 및 처리절차를 숙달하여 주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차 폭발물 처리 종합실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표준 탄약조립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5월 15일(금) 항공작전 지원능력 강화를 위해 탄약관리반장을 비롯한 탄약정비 요원 들은 4개 조를 이뤄, 정밀유도폭탄과 일반목적용 폭탄 조립과 분해과정표준 탄약조립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

'20년 농촌일손돕기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13일(수)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대 인근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18전투비행단

고성지역 산불진화작전

제18전투비행단은 5월 1일(금)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자 재난대책반을 소집하고, 소방구조중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산불 진화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

'20-1차 전투대세훈련

제19전투비행단은 5월 11일(월)부터 5월 14일(목) 4일간 전시 행동절차 숙달 및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위한 '20-1차 전투대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SMART LEADER

하늘과 우주를 향한 도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2021학년도(제73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원서접수기간	2020년 7월 10일(금)~7월 20일(월)
1 차 시 험	2020년 8월 15일(토)
접 수 처	http://www.afa.ac.kr
입 시 문 의	043)290-5504, 290-6067



나의 소확행은 문우들이 우편으로 보낸 신간을 받아들 때다. 물을 떠나 섬에 정착한 지 오래지만 우리의 관계는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여전하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봉투 겉면에 적힌 저자의 이름을 확인한 이후 개봉 수순을 밟곤 하는데 이때, 손이나 문구용 가위보다 가급적 페이퍼 나이프를 사용하곤 한다. 이는 설렘을 최대한 느긋하게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자에 대한 나름의 예우이기도 하다. 정작 궁금한 건 제목인데 봉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뜬금없이 심사라니, 이유라면 출간을 앞둔 작가와 편집자가 인쇄 직전까지 고심과 고심을 기울이는 작업이 바로 제목을 정하는 일임을 익히 아는 까닭이다. 여하튼, 이런 과정 끝에 부푼 기대감으로 제목과 대면하는 것인데, 두어 번 입 밖으로 소리를 내 읽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책장을 넘긴다.

이 책은 일간지의 고정 필진과 저술 활동 등을 통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탁월한 공감 능력을 인정받은 저자가 평소 애정가는 수천 편의 시 가운데 82편의 시를 고른 다음, 거기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붙여 심리적 지옥에 처한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탈출 가이드북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분명 책은 책인데 어느 순간 종이책이 아닌 무엇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다. 가령 치유의 처방전 같기도 하고 구멍 튜브 같기도 한, 맞춤형 열쇠인가 하면 가만가만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바닥이기도 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 같고 엄마가 차려준 집밥 같은.

그런, 무엇!

사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제목에 대한 첫 느낌은 당혹, 그 자체였음을 이참에 이실직고해야겠다. 과학계 직설적이고 단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여겨졌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지옥을 발각당한 자의 방 어적 불편이었음을 깨닫고 나자 오히려 은근한 위안과 뒷배로 여겨졌다. 책방 방문객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잠시 멈칫하며 뜬을 들인 다음 “지금 내 상태야! 어떻게 알았지?”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니 비단 나만 그런 건 아닌 게 분명하다. 이는 우리 주위에, 아니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아가 무수히 많다는 반증일 터, 그렇지 않고서야.

내 마음이 지옥! 은 지옥에 빠진 자의 다부지고도 능동적인 긴급 구조요청 신호일지 모른다. 이제 그만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기어코 탈출하고야 말겠다는, 탈출을 도와달라는.

“시리아나 아우슈비츠처럼 객관적 지옥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주관적 지옥들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지옥 상태인지 아닌지 셀프 점검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열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중 몇!

「징징거리도 괜찮다」, 「기승전 ‘내 탓’ 금지」, 「자꾸 무릎을 꿇게 될 때」, 「낭떠러지 같은 이별 앞에서」, 「모두 내 마음 같길 바라면 뒤통수 맞는다」, 「억울함이 존재를 상하게 할 때」, 「상상 속에서는 어떤 증오도 무죄」, 「그럴 줄 몰랐다면, 차라리 멈칫하라」, 「자기 안방에 스스로 지뢰를 묻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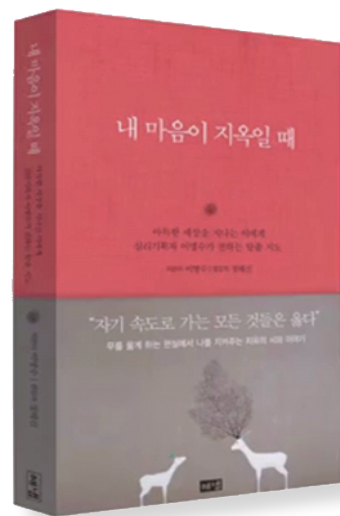
항목 마다엔 각각 대여섯 편의 시를 배치해 자기 점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는 립서비스 차원의 추상적 위로, 격려 차원을 넘어선 대단히 전문적인 심리적, 정신과적 개입이다. 그러니 주저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책장을 넘기시라. 혹자는 ‘교과서 이외엔 시를 읽어본 적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해가 될까?’, ‘시만

보면 골치가 지끈거리는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묻고 싶은 이들도 분명 있을 게다.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 노 프라블럼!

이 책의 효용성을 복잡한 마음의 수월, 상처의 치유, 무릎 꿇은 자존감 회복, 무기력의 활력, 온갖 무의미의 의미 등으로만 국한한다면 협의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책 한 권을 읽었을 뿐인데 어느새 성큼 키가 자라 영육 간의 버팀목이 된 82편의 시적 자산까지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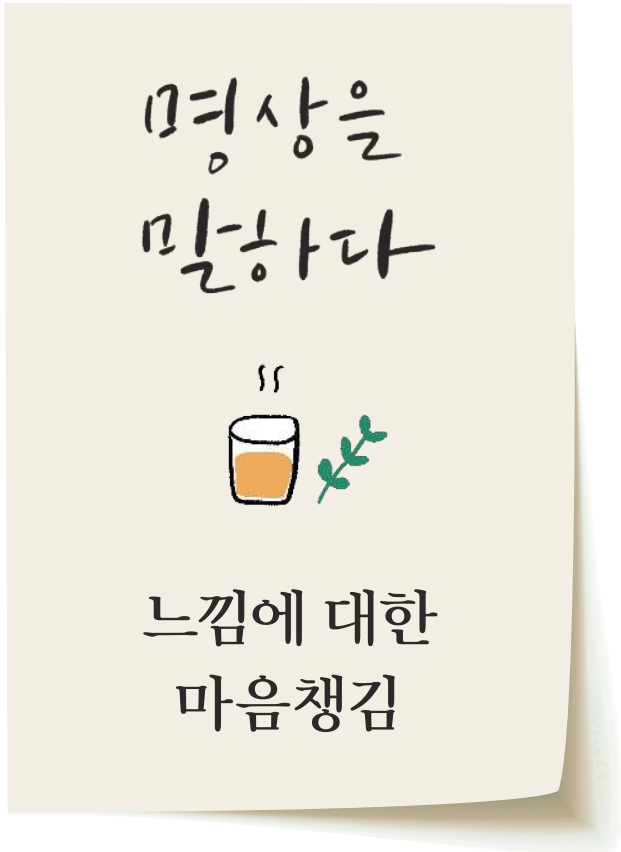
“시는 그 자체로 부작용 없는 치유제다. (중략) 누군가 인류를 구원할 세 가지 중 하나로 시를 꼽았다(나머지는 도서관, 자전거). 끄덕끄덕.”

“왜 하필 시일까?” 궁금해하는 심리적 지옥 수감자 또는 일반 독자들에게 저자의 생각을 대신 전하며 덩달아 나오 끄덕끄덕. **AF**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제주에서 서점카페 ‘시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지요. 몸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마음이 무엇 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흔히 몸 처럼 하나의 실체로 있는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의 영역 안에 속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떠올려 보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과 생각은 서로 다른 마음 작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때, 즉 차갑다, 뜨겁다, 덥다, 춥다, 아 프다, 우울하다, 유쾌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등등의 경 우 모두 어떤 느낌들은 분명한데, 그것들은 모두 생각과 는 다르지요. 느낌은 지금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지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낄 때, ‘차갑구나’ 또는 ‘뜨겁구나’라고 굳이 ‘생각’을 해야지만 비로소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끼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나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느낌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서 느껴지지요. 느낌은 내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은 느낄 수 있을 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나 미래는 생각할 수 있을 뿐 느낄 수 없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명상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느낌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굳이 느낌과 생각을 왜 구별 해야 하느냐고요? 흔히 지금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에 더 가깝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불행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느낌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게 되지만,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살게 되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까 지금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말하자면 느끼는 삶이 생각하는 삶보다 더 행복에 더 가깝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는 감각, 감정, 기분, 무드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지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감각, 감정, 기분, 무드는 그 결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 결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느낌은 생각에 앞서 오고 생각을 이끌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과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에서 시작해서 그에 따라 생각 등 나머지 마음 작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느낌은 명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관찰대상입니다.

좋은 느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싫은 느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좋은 느낌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뜻과 상관 없이 싫은 느낌도 일어나게 마련이지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것을 이해하고자 명상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지요. 느낌을 이해하려 한다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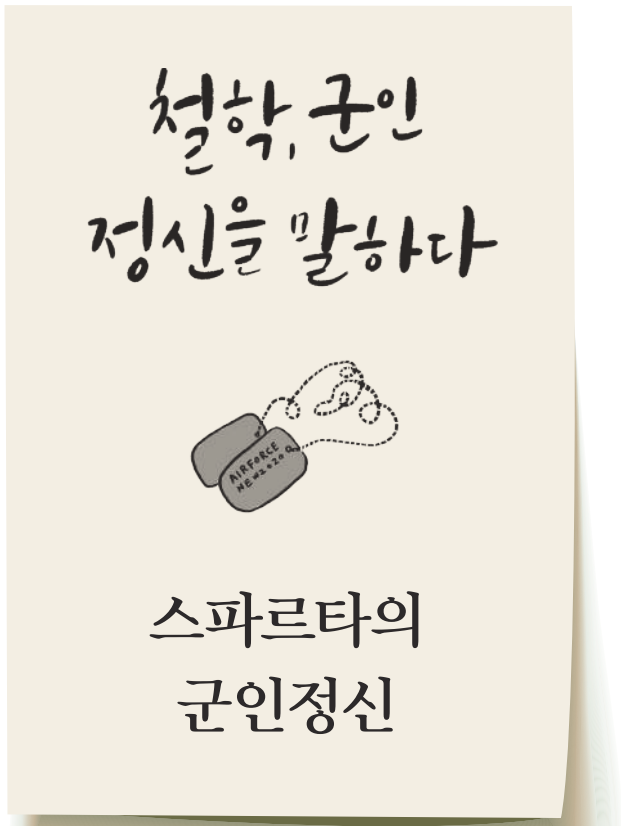
자, 그러면 이제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 ①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심호흡을 세 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다 이완했다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보면 아직 이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놓아버리고 좀 더 이완합니다.
- ② 코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그대로 놔둔 채 숨을 알아차려 봅시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뒀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쉬도록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내버려 두고 공기가 콧구멍을 들고 나는 그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 ③ 이어서 알아차림을 가만히 내 몸 전체로 가져가 봅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몸의 여러 부위에서 어떤 감각 또는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가려움, 따가움, 당기는 느낌, 놀리는 느낌 등 그것이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감각 또는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시다.
- ④ 몸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마음 쪽으로 가져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기분 등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느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 ⑤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분 이상 진행한 후,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위대함은 남다른 절제와 단련에서 온다

테르모필레 전투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았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끌고 온 군대의 규모는 기록상으로 백만 명이 넘었다. 이에 맞서는 그리스 연합군의 규모는 턱턱잡아도 만 명 남짓, 전력상으로는 승패가 너무 뻔했다. 그래서 연합군은 열세를 막기 위해 테르모필레(Themophylae) 계곡에 진을 쳤다. 좁은 계곡이라 적은 병사로 많은 병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군세(軍勢)의 차이는 어찌지 못해,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리스 병사를 걱정할 정도였다.

“페르시아 전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활을 쏘면 화살로 태양을 가릴 정도랍니다.”

그러자 병사는 씩씩하게 답했다.

“잘됐군요. 놈들이 화살로 태양을 가려주니, 그들에서 시원하게 싸울 수 있겠네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였다. 그는 최후 결전을 위해 병사들의 일부만 남겼다. 테베에서 온 400명, 테스피아 출신 병사 300명, 자신의 근위대 300명이 전부였다. 패배가 뻔한 상황에서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비밀 통로가 페르시아에 알려지자, 협곡의 이점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레오니다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스파르타의 300명 병사와 함께, 그는 백만 대군에 맞서 사흘을 더 버텼다. 그리고 전원이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후에 그리스인들은 30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이 숨진 전쟁터에 비석을 세워주었다. 비석에 적힌 문구는 이러했다.

그대, 지나가는 이여. 가서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여기 누워있노라고.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그리스의 학교

영화 <300>은 테르모필레 전투의 이야기이다. 영화가 보여주듯이 스파르타인은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전성기에 스파르타는 그리스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스파르타를 ‘그리스의 학교’라며 부럽게 바라봤을 정도였다. 왜 그랬을까?

스파르타 시민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었다. 하나는 ‘공교육’이라 할만한 ‘아고게(agoge)’다. 스파르타 시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강한 전사로 길러졌다. 일곱 살부터 스무 살까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집단생활을 해야 했다. 어두운 밤에도 불을 켜지 못했고, 머리를 뺏빱 민 채 맨발로 지냈다. 먹거리 또한 늘 부족해서 도둑질을 해야만 겨우 배를 채울 정도였다. 이마저도 음식을 흠치다 걸리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곤 했다. 이 모두는 인내심과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핵심만 짚러 짧게 말하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스파르타의 교육은 범죄집단의 극기 훈련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시민들의 심성을 울곧게 다잡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나아가, “핵심만 짚러 짧게 말하라.”라며 거듭 교육받았다. 말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들에게 언제나 시민의 덕목을 깨우치는 깊은 물음도 주어졌다.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가?” 등등으로 청년들 스스로 명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끊임없이 몸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과 욕심을 다스리는 단련의 연속이었다.

나아가, 스파르타인들에게는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다. 스파르타인들은 평생 공동식사를 해야 했다. 누구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했다. 끼니때마다 함께 모여 밥을 같이 먹어야 했다. 왜 그랬을까? 옆 사람

이 쫄쫄 굶고 있는데 혼자서 진수성찬을 먹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좋은 식기가 많아도 홀로 잘 차려 먹기란 눈치 보이기 마련이다. 이렇듯 공동식사는 구성원 모두의 삶을 평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시민들은 마땅히 내야 할 만큼의 몫을 식사 비용으로 치러야 했다. 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터였다. 이처럼 공동식사는 스파르타 전체 사회에 자신이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는 구조였다.

인간의 삶은 돼지와 다르다.

스파르타인들의 육체는 튼튼했고 정신은 견실했다. 그런데 과연 스파르타인들은 행복했을까? 평생 욕망을 옥죄며 전사로서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일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노예와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오를 테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일상을 돌이켜 보라. 편함을 추구하고, 느슨해지고픈 마음은 본능에 가깝다. 늘어진 몸이 시키는 대로 헛헛하게 보낸 하루가 후회되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강하게 나를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는가? 인간의 삶은 돼지와 다르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이라면 인내와 도전으로 삶을 울곧게 세우고 싶은 욕망이 샘솟기 마련이다.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부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순간의 쾌락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이어진다. 반면, 욕구를 이겨내며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생활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훌륭한 전사의 영혼이 욕망을 이겨내며 자신을 더 ‘사람답게’ 만들고픈 바람으로 가득한 이유다.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으며 이루어야 할 고귀한 명예에 다다른 스파르타 전사들의 삶도 그러했다. 테르모필리아 전투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긴 스파르타 전사들의 용기를 되새겨 보라. **AF**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생각의 이분화

뉴욕 월스트리트에 세워진 '황소상'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은 황소의 역동적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긴 줄을 섭니다. 황소는 경기 호황, 투자 증대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황소와 사진을 찍고 '부자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가의 상징인 황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봄, 130cm의 소녀가 3m가 넘는 황소의 돌진을 정면으로 막아 선 것이죠. 황소상 앞에 홀연히 나타난 소녀상.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미디어들은 그녀가 황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인식을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상 하나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었던 PR 캠페인이 이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황소를 무력하게 만든 '소녀의 기상'

소녀 동상은 2017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라는 보스턴 투자회사의 펀드 상품 론칭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탄생했습니다. SSGA 사는 "사내 여성의 의견을 기업 경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회사가 수익률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게만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고객에게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 SSGA 사는 색다른 홍보 전략을 찾게 됩니다.

생각의 이분화입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도 밤낮, 남녀, 물불, 흑백으로 심플하게 이분화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SSGA 사의 펀드 상품을 생각의 이



※ 출처 : 보스턴 글로브. (2017. 12. 19)

분화의 틀에 넣고 '남 VS 녀'로 구분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상품을 다루는 금융시장은 뉴욕 월가의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입니다. 남성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여성 관련 펀드를 판매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SSGA 사는 '다윗 VS 골리앗'처럼 '남 VS 여' 구도로 단순화하면 심플하지만 강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홍보의 방향을 결정한 SSGA 사는 월가에서 남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물을 찾던 중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합니다. 황소상을 찾은 관광객들이 부자의 기운을 받는다는 속설 때문에 황소의 고환을 만지며 사진을 찍고 있던 것이죠. SSGA 사는 대표적인 남성 상징물을 황소상으로 선택하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황소에 도전하는 상징물을 소녀로 결정합니다. 황소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구조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런 황소 앞에 왜소한 소녀가 세계 여성의 날인 2017년 3월 8일에 등장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황소 앞에 선 '겹 없는 소녀'는 남성 중심의 불평등에 맞서는 여성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으며 월가

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소녀상은 뉴욕시의 허가에 따라 한 달만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소녀상을 보전하라는 3만 건 이상의 지지 서명이 모여 뉴욕 증권 거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구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17 칸 광고제 Glass PR 등 글로벌 광고제에서 18개의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지역과 문화, 언어를 초월해 여성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PR은 오래된 시선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통

복잡한 생각을 이분화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이분화된 생각에 주제를 넣으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여성 관련 펀드'라는 재미없는 상품을 '남녀'라는 주제로 생각을 이분화시키고, 성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이죠. 이번 사례는 아이들이 즐기는 레고 놀이와 비슷합니다. 황소 인형 앞에 호랑이 인형을 세우는 것과 황소 앞에 목동 인형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세우냐에 따라 생각의 구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황소 앞에 소녀가 나타나게 되자 황소는 평범한 동물이 되거나, 남성 지배 사회라는 고정관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생각을 단순화하고 시선을 이동시킬 수 있을 때 PR은 성공하게 됩니다. AF



글쓴이

홍보회사 플랜얼라이언스 대표. 국방부 장병사랑 캠페인, 인천공항 브랜딩 캠페인, 아디다스, SKT 등 국내외 브랜드의 통합 캠페인을 20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김현우 (제17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현우예요. 요즘 잘 지내시고 계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린다는 게 자주 까먹게 되고, 막상 전화를 드리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누구보다 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버지이실 텐데 이 편지를 계기로 앞으로는 연락 잘 드릴게요. 훈련소 안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로 서운했던 일을 적어서 보냈는데 아버지도 저한테 편지를 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무뚝뚝하고 표현도 많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어려서 아버지가 표현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안 보였나 봐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더 다가가고 사랑한다고 표현할게요. 일단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해서 군 복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 혼자서 저희 남매 3명을 키우시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군대 오기 전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일을 하러 공사장을 가고 현장도 가서 같이 일했던 게 생각나네요.

아버지께서 그 힘든 일을 저희를 위해 묵묵히 견디고 하셨다는걸, 아버지의 힘든 생활과 고독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현우야 조금만 더 크면 아빠 마음을 알거다.’ 라고 하셨는데 군대를 오고 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힘든 상황도 많이 겪어보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네요. 아직도 많이 어리지만 제가 군대를 오고 나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어린아이로 보시겠지만요.(하하하) 이말 저말 하다 보니 두서가 없어졌네요. 제가 작문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공군지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걷기 불편하시면 전동휠체어 제가 꼭 사드리겠다고 했던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와 저만의 약속이지만 언젠가 꼭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너무 뽀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못다 한 말, 이렇게라도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휴가 나갔을 때 기억하세요? 2박 3일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를 가족들과 함께 배웅해주러 오셨던 날이요. 역에 도착해서는 막내에게만 짧게 “love you”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저에게 엄마는 “아들, 엄마는?” 하셨죠. 그땐 못 들은 척 인사만 하고 내렸지만 복귀하는 열차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잖아요. 머나먼 미국행 비행기에 홀로 올랐을 때도, 훈련소에서 2주 만에 엄마 목소리 들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할 말만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휴가 동안 엄마랑 여러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엄마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진심을 담아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그저 말 한마디일 뿐인데, 저는 뭐가 그렇게 속스러웠던 걸까요? 이런 점에서는 참 우리 귀여운 막내가 고맙네요. 가족들에게 저 대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난번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우리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정작 엄마 아빠 아들이라서 행복하다고, 항상 고맙다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지만, 엄마가 제가 빨리 집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저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공군에 입대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들 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시차도 생각해야 하고 밀린 과제도 끝내야 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엄마 퇴근하실 즈음에 전화하면 언제든 여유롭게 가족들 안부 물을 수 있게 되어서 늘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돼요.

엄마, 저는 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제 마음을 전달하는 데 조금 서툴렀었죠. 이렇게라도 엄마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꼭꼭 눌러 담아 보아요. 아,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곧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짧은 휴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이번에는 꼭 제대로 엄마께 표현해 볼게요.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대위 박진솔(제35비행전대 257공수비행대대)

『그릿 GRIT』 끈기가 성취를 만든다

멋진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천재’가 아닌 스스로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과연 천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꾸준한 노력만이 천재를 만든다.’라고 정면 반박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위해서 ‘GRIT’ 곧 끈기로 치환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생을 분투하던 저자는 이 끈기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둬 TED를 통해 ‘GRIT’의 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자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투영되어 본문에 더 깊은 공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GRIT’과 우리가 흔히 아는 노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자주 낙심하곤 합니다. 계획은 노력의 의지만 있으면 가 능하나 성취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곧 지속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조금씩 전진하려는 실행 의지에 있습니다. 일례로 제 사무실의 문틀에는 철봉이 하나 있습니다. 임관 전에는 근력이 부족해 철봉을 잘하지 못했는데, 올해 초 병사들과 함께 유튜브와 ‘철봉 루틴’을 참고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도 버거웠지만 서로 재미를 붙이며 끈기로 버틴 결과 정자세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수를 늘릴 때 느꼈던 성취감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 실행했다면 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GRIT’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던 농담들과 웃음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해서라도 쉬지 않고

한 개라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점심 시간에도 작은 성취감을 위해 매일 부서원들과 철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성취 역시 ‘GRIT’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임관 전 다녔던 디자인 학교에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1년 동안 같이 실기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꾸준히 사물을 관찰하고 드로잉 연습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실력의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멋진 결과에 대한 열정이 끈기 있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을 곱씹어보면 ‘창의성’이라는 요소는 노력과 숙달을 통해 길러진다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결국 ‘GRIT’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편견에 좌절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은 끈기라는 티끌이 모인 태산’이라는 『GRIT』의 말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기본적 명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단순한 저 문장 속엔 요행을 바라는 제가 지켜야 할 진리가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저의 ‘철봉’과 같은 작은 성취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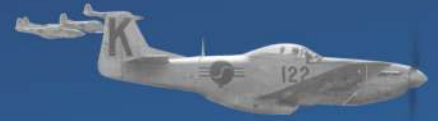


해 함께 GRIT을 길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릿 GRIT』
앤절라 더크워스 지음
비즈니스 북스 펴냄



6·25전쟁 70주년



기념 이벤트

접수부문 1

<6·25전쟁 특집 기사>를 읽은 소감

월간 『공군』 4월부터 6월까지에 연재된
6·25전쟁 70주년 특집 기사(p.16~19)를 확인해 주세요.

접수부문 2

6·25 참전용사 감사메시지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6·25전쟁과 얽힌 사연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내용의 차별성을 위해 공백 포함 **250자 이상** 보내주세요. 최대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20년 하반기 월간 『공군』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부문별 10명**이며, 기념품은 **상이하** 수 있습니다.




머그컵 / 에코백 / 6·25전쟁 70주년 인포그래픽 포스터 등

푸짐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접수 기간

~ 2020. 6. 25.(목)

접수 방법

포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 검색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 
(www.afzine.co.kr)
'독자 의견'을 통해 접수

선정자 발표

6월 말 개별 이메일 통보
선정자 주소 회신 기간 : 통보일로부터 2주

안내사항

- 발송 기념품 및 접수 기간, 선정 인원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모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미기재, 오류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선정자는 개별 이메일 통보되며, 기간 내에 주소 미회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그림 | 강은정 작가

언택트

언택트(Untact)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사 ‘Un’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패턴을 뜻합니다. 직원을 직접 마주치기를 꺼리는 20~30대 소비자들과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언택트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이 있으며 최근에는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문 앞에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언택트 소비에 해당합니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한 달 주문 건수가 1,100%가량 늘었으며 매출은 8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도 언택트 마케팅을 접목시켜 ‘드라이브 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진 것은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판매자가 내 돈만 받고 상품은 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판매원의 이름과 성별조차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제도와 플랫폼 등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이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방법도 ‘언택트’입니다. 바로 옆에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죠.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도 바로 ‘신뢰’입니다. 그들은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우리가 오늘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고 편안하게 잠에 들고 또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군대는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또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오늘도 국민들에게 ‘평화’를 배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굴은 모르지만 행복해할 그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말이죠. AF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요즈음

‘요즘’, 참 편한 말이다. 특히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없다.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또는 “요즘은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 주장에 당위성이 생긴다. 때로는 통계, 전문가의 말보다도 설득력 있는 말이기도 하다. 또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구시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미묘한 신경전에서 단숨에 우위에 설 수 있다.

여기서 반의어는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나 때’(또는 ‘우리 때’)다. 이 말도 참 편하다.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또는 “나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꿰어.”라는 한마디면 된다. 이 말은 상대방을 버릇없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때도 상대방보다 대화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런 효율성 때문인지, ‘요즘’과 ‘나 때’는 각자 청년과 기성세대의 논리로 사용되곤 했다.

하지만 ‘나 때’의 경우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꼰대’ 담론의 등장과 함께 금기어가 된 것이다. 기성세대의 방어 논리로 사용되던 ‘나 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요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나 때’가 죽어가는 이유는 바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다. ‘나 때’ 또는 ‘우리 때’에 ‘너’나 ‘너희’는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로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 또는 청년들이 아주 어렸을 때를 의미하며 말 자체에도 ‘나/너’의 구분이 명확하게 함의되어 있다. 여기서 화자인 ‘나’는 기성세대고 청자인 ‘너’는 청년세대기 때문에 더 강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그저 과거 경험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공감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방어논리 일 뿐이다.

‘요즘’이라는 개념에 ‘너’와 ‘나’의 구분은 없다. ‘요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구분이 있는 ‘나 때’와 달리 ‘요즘’은 명확한 시간적 구분이 없기에 청년도 중년도 모두 그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요즘’의 개념은 시시각각 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두의 것이다. 결국 ‘요즘’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개념인 것이다. 그렇기에 ‘요즘’은 ‘나 때’와 달리 살아남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만약 ‘요즘’이 그저 청년들만의 방어논리로 사용된다면, 결국 이 표현 역시 기성세대를 공감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나 때’에서 벗어나야 하고 청년세대 역시 ‘요즘’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치부해버리기 전에 우리도 ‘요즘’ 또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방패 속에 무책임하게 숨어 지내진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역사는 모든 ‘요즘’의 합집합이다. 과거에도 물론 ‘요즘’이 있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요즘’이 모여 역사가 된다. 따라서 ‘요즘’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역사에도 주인은 없다. ‘요즘’과 역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렇기에 의미 있는 것이다. ‘요즘 군대 달라졌다.’라고 말하곤 한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부러움과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복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담긴 표현이다. 여기에서의 ‘요즘’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요즘’을 만들어가는 공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새 시대의 공군을 기대해 본다. AF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p>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 /rokafplay</p>	 <p>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 /rokairforce</p>	 <p>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 /rokaf_official</p>	 <p>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p>
--	--	--	---

공군 인스타 EVENT!

공군 인스타그램에서 펼쳐지는 스토리 퀴즈 이벤트!
공군 유튜브 즐기고, 퀴즈 맞히고, 공군 굿즈 까지 받아주세요!

<p>1 공군 인스타그램 팔로우</p> 	<p>2 공군 스토리 확인 *모든 스토리가 퀴즈는 아닙니다</p> 	<p>3 링크되어있는 공군 유튜브 영상 확인!</p> 	<p>4 퀴즈를 맞히면 응모 완료!</p> 	
--	---	--	---	---

「마음의 소리」

E-Book자료관을 통해 보내주세요!

www.afzine.co.kr

지금까지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월간 공군』 E-Book자료관으로 받습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공군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사연을
매월 10일까지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E-Book 자료관

공군지 E-Book 열람은 물론 무료 구독 신청,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 (택1)

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를 찍어보세요.
3. 주소창에 www.afzine.co.kr을 입력하세요.



마음의 소리

김영석

vivaysk**@gmail.com

공군 5월호는 가정의 달에 맞게 표지 디자인부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부드럽게 담아내고 있어 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조용한 열혈 구독자로서 항상 기획, 편집 그리고 디자인까지 군에서 매 월 발행하는 잡지는 투박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수준 높은 공군의 위상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군인 부부로 산다는 것', 가정의 달 기고 '공군 병사로 입대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다' 그리고 내 옆의 공군인 '형제 조종사'까지 공군 부부, 형제 이야기가 공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기사들을 읽으니 37년 전 공군에서 복무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공군 현역 시절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셋째 동생이 공군에 입대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쳐서 제 손으로 병무청에 가서 공군 지원서를 제출하고 입대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공군 후배가 된 것이지요. 5월호의 공군 형제 기사는 잠시라도 그때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공군지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챙겨 읽는 기사는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코너인데 5월호의 '상양의 군인정신'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기사의 맨 마지막 문장인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줍니까?"라는 짧은 물음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공군인 모두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물음입니다.

김동환

andrew1127.k**@gmail.com

해군 항공전단에서 근무하는 상황병입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상황이 터질 때마다 순식간에 출격해 대응하는 공군의 신속함에 놀라고, 쉬는 동안 즐겨 보는 공군지, 모아공주, 공대리 등 다양한 공군 콘텐츠의 높은 퀄리티에 늘 감동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최고를 보여주는 공군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매달 훌륭한 잡지를 만들어주시는 공보정훈실 편집실, 그리고 저희 초계기의 교신을 도와주시는 34전대 319대대 장병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맞붙어 있는 바다와 하늘처럼, 공군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유진

inso14**@naver.com

저는 공군 의무부사관에 3번째 도전 중인 20살 여학생입니다. 처음 공군 1월호를 받아 볼 때가 기억이 나네요. 공군 소식을 항상 유튜브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월간 공군을 알게 된 이후로는 매달 공군지가 배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좋은 콘텐츠로 채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못가고 있는 상태라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했는데 월간 공군을 보며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0 4